

第56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10月18日(金) 午前10時

第56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洪德熹)

(10時00分 開式)

○議事係長 洪德熹 지금부터 제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沈長錫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풍요의 계절이 성큼 우리앞에 다가왔습니다. 농촌에서는 결실을 마무리하기 위한 농민들의 땀방울이 풍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임시회를 통하여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많은 일들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열의와 의정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성북구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칭송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적 봉사와 협동의 결과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만능속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고독하게 살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속에서 이를 무시한 물질적 발전이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진정한 지방자치야말로 다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본인은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최근 민주화와 지방화의 추세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행정서비

스를 요청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능률성을 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능률적인 행정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56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6건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건을 논의하시게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나만의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민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현안을 우리는 이 의사당안에 수용하여 토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문제를 발행시키는 의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상호 깊은 이해와 협력속에 사심없는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마음껏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時07分 閉式)